광주국립박물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칸타빌레 합창단이 지난달 29일 박물관에서 열린 뮤지엄클래식콘서트에서 공연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학예사·미화원·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칸타빌레 합창단'

광주박물관에 '열정의 화음' 울리다

올 2월 창단, 매주 목요일 연습… 클래식 콘서트 무대에

가을 공무원음악회 출전…'박물관 홍보대사' 역할 할 것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이면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에서는 아름다운 합창소리가 울려퍼진다.

7년째 박물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중인 송순희(53)씨도 이날은 서둘러 점심을 마치고 동료 미화원들과 함께 연습에 참여한다. 김씨가 맡은 파트는 메조 소프라노. 지금까지 정식으로 노래를 배워 본 적이 없는 김씨는 악보를 보며 새로운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초등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2년째 박물관 자원봉사자로 활동중인 서주자(47)씨 역시 합창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물 해설 봉사를 했고, 올해는 박물관 자료 정리를 맡고 있는 서씨는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원봉사자로 뛰고 있다.

두 사람은 학예사, 사무직원, 매표소 직원, 정원사, 공익요원, 환경미화원 등 박물관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칸타빌레('노래하듯이'라는 뜻의 음악용어) 합창단원으로 활동중이다. 지난 2월 창단한 칸타빌레 합창단은 지난달 29일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에서 열린 '뮤지엄클래식 콘서트 -신록의 정원'을 통해 데뷔 무대를 가졌다.

프로 음악인들과 함께 무대에 선 합창단은 이날 김동진 곡 '가고파'와 '꽃파는 아가씨'를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무대에 선 송순희씨는 "오래전부터 노래를 배우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 도전하지 못했다"며 "함께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직접 무대에도 서니 떨리기도 했지만 참 행복했다"고 말했다.

칸타빌레 합창단의 탄생의 산파 역할을 한 이는 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이용우씨. 현재 광주전남가곡부르기회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씨는 클래식 음악 애호가. 지난 2009년에는 전국공무원 음악대전 클래식 성악 부문에서 동상을 받기도 했다.

3년전부터 박물관 음악회를 기획해 온 이씨는 지난해 12월 박물관 가족 송년음악회를 앞두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외부 인사들을 초청하고 그냥 공연 관람을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보자는 기획이었다.

직원 80여명과 자원봉사 20여명 등 총 100명이 9개 팀으로 나뉘어 두달간 연습을 했고 합창 경연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경연을 준비하면서 참가자들이 모두 행복해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정식 합창단 창단을 제안했다. 현재 참여 인원은 약 40여명. 이태리음악원 지휘자 과정을 수료한 정성실(전 서울무지개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씨를 지휘자로 영입,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칸타빌레합창단은 '광주박물관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공무원음악대전에 출전하기로 했다. 또 광주박물관 뿐 아니라 요즘 부쩍 늘어난 지방의 미술관과 박물관 음악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사실, 전 직원이 100여명도 되지 않는 직장에서 중창단이 아닌, 합창단을 꾸린다는 것은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다. 박물관측은 일반 직장이 아닌, 문화기관으로서 의미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보자 싶었다. 문화도시라고 하면 그 뿌리가 탄탄해야 하고 프로 예술인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때 진정한 문화는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용우씨는 "보통 합창단을 꾸리려고 하면 규모가 큰 조직이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마음 먹기 달렸다"며 "우리 박물관의 사례가 좋은 자극이 돼 많은 직장에서 다양한 문화의 꽃이 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

조대부고 동문들 '한국미술의 동향'전

진원장·최재영 등 탑전회

3~9일까지 무등갤러리

조대부고 동문 작가들의 모임인 탑전회(회장 임병남)가 3~9일까지 무등갤러리에서 '한국미술의 동향'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국중효·김대원·박문수·이조흠·김재일·신호재·임근재·양영남·최정희씨 등 회원들이 참여한다. 또 자신을 닮은 아이 시리즈로 알려진 최재영씨는 'Boy'를, 서예가 정광주씨는 '金石同壽'를 선보인다.

진원장씨는 노란색 바탕에 강렬한 원색을 사용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꿈의여행'을 출품했으며, 한국화가 김인화씨는 거문도의 비경을 담은 '거문도'를, 서양화가 최재봉씨는 새와 나무, 집이 어우러진 발랄한 감성이 돋보이는 '우리동네 이야기'를 각각 전시한다. 문의 062-223-58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임병남 작 '유채꽃과 아낙네들'

앵글에 담은 '현대인들의 주변'

광주대 대학원 사진학과 동문들

'風景音色Ⅲ' 광주·서울서 전시

광주대 대학원 사진학과 동문의 전시회인 '風景音色Ⅲ'전이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다. 광주전은 3~8일까지 자리아트 갤러리, 서울전은 9~15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인사동 분관 갤러리라이트. 이번 회원전에는 대학원 졸업생부터 재학생까지 12명이 참여, 최근 작품 30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風景音色Ⅲ' 전은 2004년과 2006년에 열린 광주대 대학원 사진학과 전시를 이어온 것으로 현재를 사는 현대인들이 주변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에 주목한 전시다.

전원풍경을 비롯해 도시풍경, 우리의 삶과 연관된 사회적 풍경,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 본 내면 풍경 등이 관람자들에게 '보여짐'으로써 다양성 속에서 동질성을 찾아 함께 음미하는 조화로운 현대의 음색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달현·서광리·정영성·진기정·박금희·이승완·김인숙·안미영·김천환·라규채·우옥경·김성민씨 등이 참여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라규채 작 '대숲은 호하라'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의 잇단 연주회

4일 문예회관서 합창단·교향악단 공연무대

〈구천〉

〈이소정〉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잇따라 공연을 갖는다.

광주시립합창단(단장 구천) 정기연주회가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컨템포러리의 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광주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현대음악을 소개한다. 레퍼토리는 '자비를 위한 기도' '거룩하시다' 등 4개의 곡으로 구성된 아드리안 쿠엘로 피라퀴비스의 미사곡, 찰리 빌러스 스탠포드의 '오늘 승천하시도다' 등이다. 창작곡인 허걸재의 '소묘 제 4번', 유대안 곡 '망깨소리'도 선사한다. 티켓가격 1만원·5000원. 문의 062-510-9343.

같은 날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은 '고전 음악의 밤'을 주제로 열린다. 임흥규 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라장조 작품 101'을 첼리스트 이소정씨가 협연한다. 서울대와 베를린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이씨는 동양인 최초로 독일 베를린국립오페라 차석 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마지막 곡은 유명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10-93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부·나눔문화' 대학생 광고 공모전

문광부 8월 2~13일까지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부·나눔문화', '선진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4대 실천과제'를 주제로 대학생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TV 스토리보드, 인쇄광고, UCC 등 3개 부문에 걸쳐 작품을 모집하며, 8월2일부터 13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mcst-ad.go.kr)에서 접수 받는다.

대상(1편, 상금 500만원)은 문화부 장관상, 최우수상(1편, 상금 300만원)과 우수상(부문별 각 2편, 상금 100만원), 장려상(부문별 각 3편, 상금 50만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상을 준다. 2년제 이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